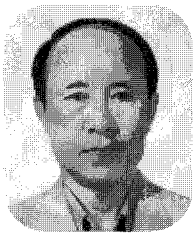
향후 돼지 수급 및 가격 동향



정 규 성 소장
축산물유통센터

1. 최근의 돈육유통 동향

수출 중단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국내 양돈 산업은 내수위주의 유통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내수시장의 유통동향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듯 하다.

최근의 국내 돈육유통시장의 흐름 중 주목해야 될 여러 요인 중 우선 순위를 부각시킨다면 첫째, 인기부위 편중 심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냉장 삼겹살 판매 흐름이 돈가를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시중의 소비 추이와 유통형태가 인기 단일 부위로 집중되어 있는 점이 돈가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고령화,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기인된 식문화의 패스트, 간편화 영향과 외식 시장 비중 확대 등으로 생육 유통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양 위주의 육류소비 문화가 질과 맛, 건강과 연계된 면이 중시되는 흐름으로 빠르게 바뀌며 냉장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육 유통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점도 돈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 중단 이후 인기부위와 나머지 부위간의 수급 불균형의 조화로운 해소가 더욱 시급한 과제인 듯하다.

둘째는 부분육가공, 유통업소들의 입지 취약으로 국내 돼지 유통

에 가장 큰 축인 부분육가공, 유통업소들의 역할, 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돈가 불안정 현상이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어느 업종이나 규모화, 구조조정 등의 과정이 필연적이라고 보나 부분육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돈육 유통시장에서 부분육가공, 유통업의 안정, 활성화는 돈가 안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판단케 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의 생돈 판매 라인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나, 양돈농가들과 부분육가공, 유통업소들 간의 상생차원의 협조 노력이 점점 더 절실할 듯 하다.

당분간 내수위주의 돈육 유통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서로를 파트너 차원에서 협조, 공생하는 마인드가 형성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2. 돈육수급 및 가격 동향

가. 돈육 수급 추이

2003년도초 돈육 수급 전망은 공급 면에서 국내 생산 예상량 81만4천여톤과 수입 예상량 6만여톤, 전년 이월 물량 5만7천여톤 등 총 93만1천여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요량은 총 86만7천여톤으로 국내 소비가 84만7천여톤, 수출 2만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내 양돈산업 여건과 소비추이를 볼 때 수입수출 양면에서 추정보다 미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 물량이 4월 말까지 검역기준으로 1,680여톤에 머물고 있고 수입물량 역시 4월말까지 21천여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이후 국내 돈가의 약세 전환성을 감안할 때 수입물량은 당초 예상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케 하고 있고 수출물량도 제주지역 이외 물량을 러시아와 필리핀 등지로 수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대에 미칠지는 미지수일 듯 하다.

나. 사육두수 및 가격 동향

1)사육두수 추이

농관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월 현재 돼지 총 사육두수는 902만7천여두로 작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전인 작년 말보다는 5만3천여두, 0.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육두수 중 향후 사육두수 증감에 기준역할을 할 모돈 두수는 98만5천여두로 작년 12월 대비 3.1%인 약 3만여두가 늘었고, 작년 동기보다는 2만7천여두,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의 주 요인은 2001년 11월 이후 구제역으로 휴지기를 보냈던 양돈가들의 재입식 영향과 올해 양돈 경기를 낙관한 규모화된 양돈가들의 입식증가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가구당 사육두수 추이도 2002년 3월에는 18,640여 두 농가가 평균 460여두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 3월에는 16,150여농가로 줄며 호당 사육두수는 550여두로 늘어나, 양돈 농가들의 규모화가 지속됨을 반영하고 있고 1,000두 미만 사육 농가들의 사육 호수는 전체 농가의 82%를 점유하고 있으나 사육두수는 28.5%로 감소되었으며, 1,000두에서 5,000두 규모 농가들의 가구 수는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한 17% 였고, 사육두수 비중은 54.6% 전년 동기대비 2%가 늘었다. 이러

한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이후의 총 사육두수 증가세는 1,000두 미만 농가들은 물량이 감축되고 규모화된 농가들의 사육두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케 하고 있다.

2)가격동향

시중경기 위축세 지속과 돈열 발생 등의 영향, 사육두수 증가 영향 등이 작용하여 작년 8월 이후 지속되오던 돈가 약세가 예년의 돈가 사이클보다 늦게 5월 들어서면서 반등하며 6월 상순에는 상승 폭을 높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 중의 도축두수가 1월에 140만여두, 2월 118만여두, 3월 128만여두, 4월 154만여두로 총 538만7천여두가 도축되어 작년 동기대비 8.1%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돈가 사이클이 예년보다 다르게 형성된 점을 이해하게 하는 듯 하며, 5월 이후 돈가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듯하다.

6월 들어서며 산지출하물량 부족세와 소비지 시장의 소비대체 효과 등의 영향으로 산지 돈가는 21만대까지, 박피비육돈 전국 평균가격은 3,300원대까지 올랐으나, 중순 들어서며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3. 하반기 돈육 수급 및 가격전망

가. 하반기 돈육 수급 전망

축산관측 기관과 관련단체들의 하반기 출하물량 전망은 총 사육두수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며, 그간 부족세를 보이던 출하물량이 7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치는 전년동기 대비 7월부터 12월까지는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경연 자료 참조) 돼지 총 사육두수는 3월중의 모돈 수가 작년 동기보다 2.8% 정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9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949만여두로 추정하고 있어 7월 이후의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크다.

나. 가격전망

하반기의 돈가 흐름을 좌우할 요인 중 가장 우선적인 수요, 공급 여건을 감안하면 출하두수 증가 추이와 소비지 시장의 돈육소비, 수출, 육가공제품 소비 흐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련기관에서 추정하는 출하물량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이견도 있으나 전년대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공감되고 있어 증가폭이 더욱 관심사일 듯하고, 소비지 시장의 돈육소비 추이가 더욱 주목케 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상은 경제 성장 둔화 지속으로 소비심리 위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돼지고기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위축시에 기대되는 소비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도 주목할 사항이다.

또한 돈육 소비, 유통시장의 가장 난제인 부위별 불균형 심화와 냉장육 위주 소비형태로 인한 돈가 불안정도 악재로 작용될 것이 예상된다. 참으로 어려운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돈가 약세를 전망케 하는 요인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7~8월에는 16만~18만원대, 9~11월에는 13만~15만원대로 내림세가 이어지다가 년말에는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양돈